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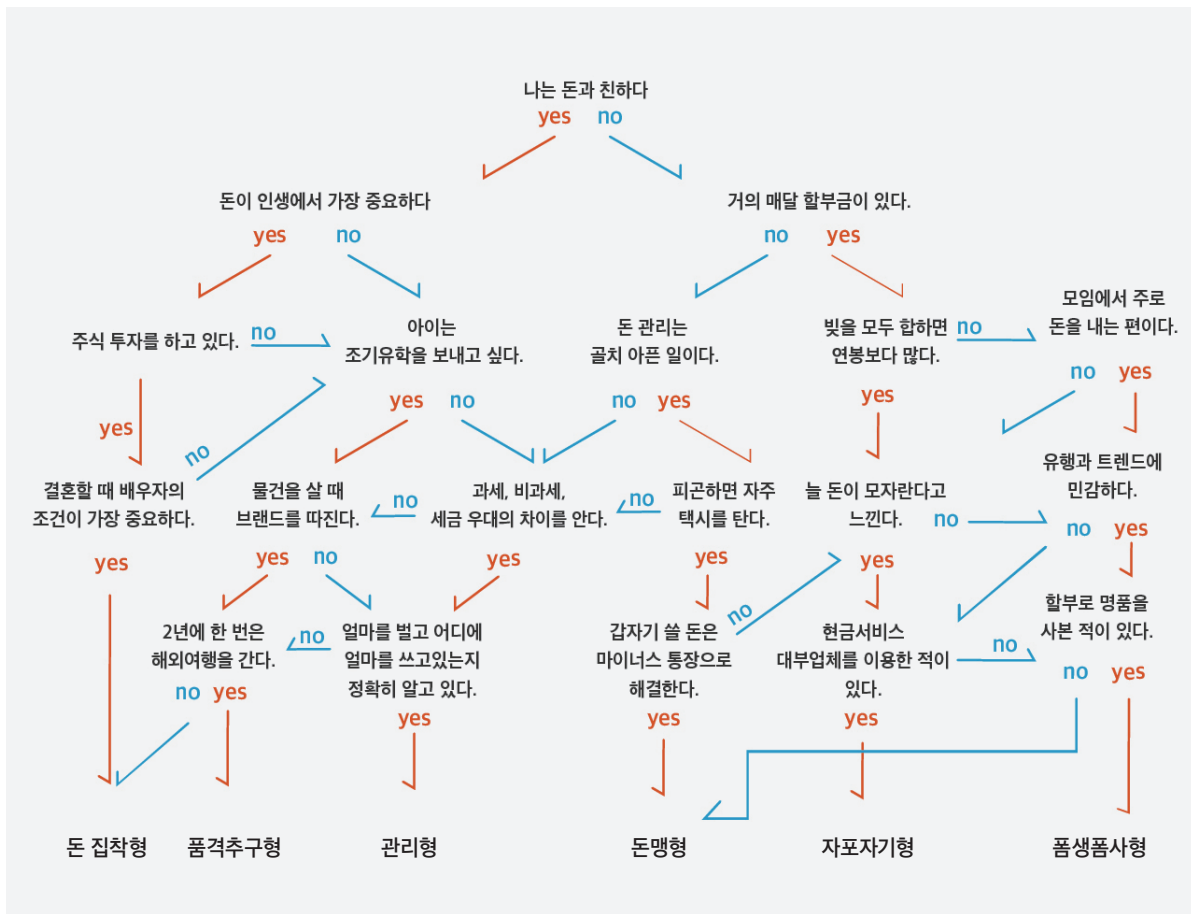
3. 돈의 완전 정복(?)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 테스트를 통해 나의 돈 관리 유형을 파악해보자. (유형결과는 다음 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지영. 「가난한 싱글을 위한 나라는 없다」 (토네이도)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 각자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이야기하고, 평소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자.
- 돈 문제에 관한 나쁜 경험이 있거나 주변사람의 경험을 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결과보기

돈집착형 : 돈을 모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자,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다. 또한, 경제 신문, 재테크 도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 돈에 대해 공부하는 데 적극적이다. 돈이 많아 야 한다는 압박으로 투자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거나 빚을 지는 것을 겁내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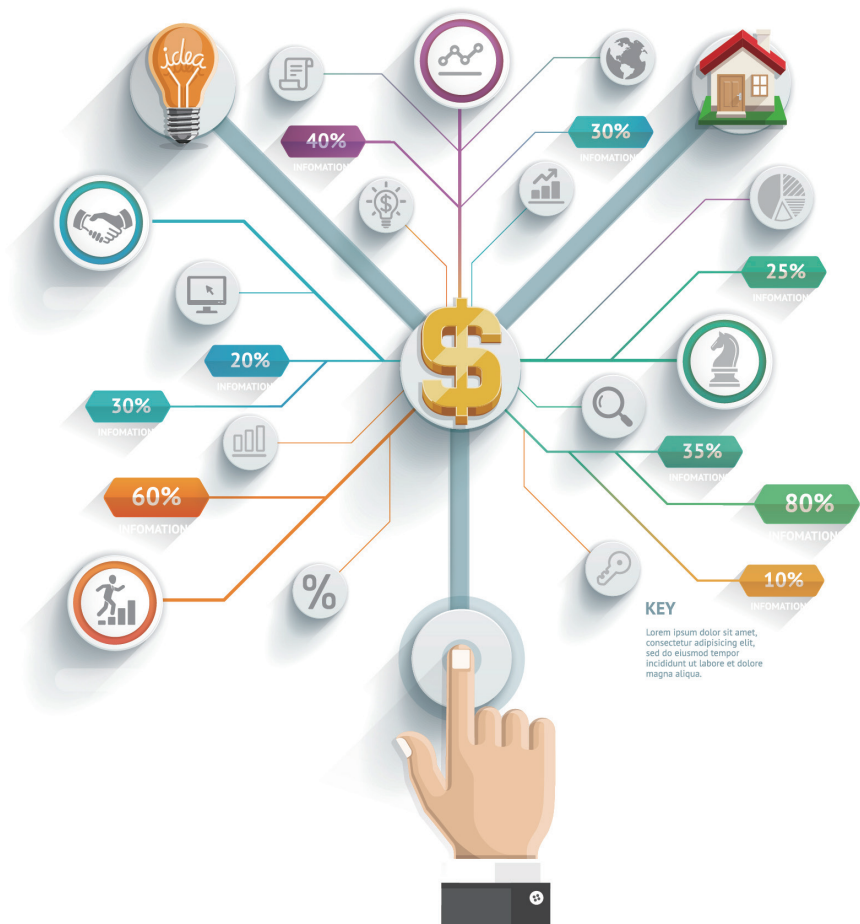
품격추구형 :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중산층 이상인 사람으로서, 돈을 쓰는 기준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회의 시선이 된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없다는 허탈감을 느끼기 쉽다.

관리형 : 돈이 많고 적음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시 하는 유형이라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하고 소비에 있어서도 브랜드를 따지기보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려는 편이다. 나의 기준에 따라 살려는 주체성과 실속을 따지는 합리성이 뛰어나 자기 욕망을 주체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

자포자기형 : 소득이 적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돈이 들어오면 쓸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다. 늘 돈이 부족하다 보니 현금 서비스나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충동구매에 약하고, 저축을 포기하는 경향이 크다.

품생품사형 : 소비는 이들에게 타인에게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자 즐거운 유흥이다. 소비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 돈을 버는 이유도 소비를 위한 것이다.

돈맹형 : 막연히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돈에 대해 배우거나 관리해본 적도 없으며 금융 지식도 없다. 재테크나 투자도 뒷집지고 바라만 보는 경우가 많다. 대개 투자의 막차를 타고 손해를 보는 유형이다.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돈을 다루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함을 엿보는 바로미터가 된다. 사람들은 우리가 숭고한 원칙에 맞게 돈을 다루는지, 또는 돈벌이만 된다면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돈을 헤프게 사용하고 있는가? 은밀히 수입을 숨기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세금 회피에 관여하고 있진 않은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가격 인상, 수수료, 보너스 등을 요구하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재정적 이익을 취하는가? 불균형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 기독교 신념과 일치한다고 인정하는가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주는 셈이 될 테니 말이다.ⁱ

부의 완전 정복에 도전하라!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자본주의 사회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수도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문제는 사탄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예전보다 더 영악해진 사탄은 인간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서 유혹한다”(알렉산더 포프)라는 말이 있다.ⁱⁱ

“예전보다 더 영악해진 사탄은
인간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서 유혹한다”
_ 알렉산더 포프

그러나 부에 대해 잘 알고 접근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수확 완전정복’에 도전했듯 ‘부의 완전 정복(?)’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돈 중심 나무’와 ‘하나님 중심 나무’

척 벤틀리라는 사람의 집 뒤뜰에 자라던 나무가 죽었다. 그는 그 나무를 뽑아버릴 생각을 했다. ‘좌우로 흔들면 쉽게 뽑히겠지’하고 생각하며 땅을 조금 파서 나무를 통째로 뽑을 계획을 세웠다. 뿌리 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무 주변의 땅을 파다. 구덩이는 계속 커져갔다. 뿌리 끝을 찾기 위해 계속 더 파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도 와서 돕기 시작했다. 땅을 파고, 톱질을 하고, 베고, 심지어 밧줄로 밑동을 잡아 뽑으려는 시도까지 했다. 뿌리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것은 죽은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뒤엉켜 있던 전혀 다른 식물의 뿌리였다! 겉보기에 작았던 나무 한 그루 뽑아내기가 이토록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는 이 경험으로 사도바울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 6:10)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욕심 주위에 많은 악들이 달라붙고 물리게 된다. 이것을 돈 중심 나무로 부르자.ⁱⁱⁱ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나쁜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너무 깊어 파내기가 힘들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와도 결국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물질적 기대와 축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에 복음을 접하면 감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뿌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이기심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십일조 열심히 해서 돈의 축복을 받았다

돈 중심 나무(The Money Tree)



는 성공 간증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 말을 굳게 믿고 십일조를 열심히 한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자처럼!

해결책은 단 한 가지다. 힘들더라도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한다. 그 전에는 '돈 완전 정복'은 힘들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 대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씨를 심어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한다. 더불어 그 뿌리를 원천 삼아 돈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 중심 나무'라고 부르자.

돈을 관리하는 3가지 성경적 원리

위의 첫 두 그림을 옆두에 두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지 세 가지의 원리로 정리해 보자.

하나님 중심 나무(The God Tree)



첫째,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신8:12-14)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신 8:17-18)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투자할 능력, 생산할 능력, 무역할 능력, 제조할 능력, 유통할 능력,

거래할 능력 등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8-9). 재물 때문에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사업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야고보서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약 5:2-3)라고 하며 돈을 모으기만 하고 그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과시하며 사는 삶에 경고를 준다. 비즈니스를 하며 돈 모으는 데만 정신을 쏟고 또 그것을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표현한다(약 4:13, 16). 재물을 가지고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잘 쓰는 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방탕하게 사치하는 모습은 도살꾼이 도살하기에 힘만 더 들게 만드는 기름 많은 짐승 같다고 표현한다(약 5:5).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행복과 방탕 사이의 구분은 나의 삶과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어떤 일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감사’가 나오면 오히려 한 것이지만, ‘자랑’이 나오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한 삶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업 계획 중심에 늘 두라고 말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 4:15).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좇아 사업을 해야 함을 가르친다.

사회 심리학자 폴 피프(Paul Piff)는 ‘돈이 당신을 비열하게 만드는가?(Does money make you mean?)’라는 주제의 테드(TED) 스피치에서 미국 버클리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 했다. 모노폴리(Monopoly)라는 게임을 하는데 한 학생에게는 시작부터 돈도 더 많이 주고 혜택을 더 많이 주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놓았고 다른 학생에게는 그런 특혜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반응이 감지되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한 학생이 게임을 주도하며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되자 자

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했으며, 게임을 할 때 소리를 더 요란하게 낸다든가 앞에 있는 과자(프레젤)를 훨씬 더 많이 먹는 등 지배적 태도를 보이는 행동을 보였다. 점점 오만해지고 상대방을 덜 의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게임을 이기고 나서 소감을 물었을 때 자신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과시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말 ‘돈이 인간을 비열하게 만드는가?’ 이 실험 결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폴 피프는 해결책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와 함께할 때 위의 상황처럼 돈이 사람을 비열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셋째, 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정의(Justice)와 사랑(Love)이라는 양 날개의 가치다. 예레미야 9장 23-24절은 “...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의 원칙을 돈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것이다.

정의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활동하는 기준이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휘둘러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에 상처를 줄 때 나는 정의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이 풍요를 이루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울터스토프(Wolterstorff)는 이러한 개념을 ‘관심-사랑주의(Care-Agapism)’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번영에 관심을 두는 것을 올바르게 재정을 행사하는 원리로 보았다. 그것이 직원이든, 손님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을의 대상이든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분은 3가지의 마음을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마음으로, 안전하고 질



이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고용인에 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목표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영적 관리를 위해 성경공부도 제공해 준다고 한다. 고용인들의 행복이 비즈니스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한다. 세 번째는 손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손님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통해 사랑을 준다고 한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 관계된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음식의 질과 맛을 통해 건강과 기쁨을 나누어 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공헌을 하고 싶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기독교인은 이처럼 세상 사람과 경영 철학이 달라야 한다.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사랑’의 경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풍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 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 태우는 사건이 나온다(행 19:18-20).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 오만이나 되었다.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내하고 그 책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불태웠다. 대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행 19:20)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 놀랍지 아니한가! 잘못된 투자에 종지부를 찍었더니, 그리고 돈을 제대로 다스렸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된 재정 사용과 잘못된 투자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제공된다.

이제 ‘돈의 완전 정복’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

기독교인은 이처럼 세상 사람과 경영 철학이 달라야 한다.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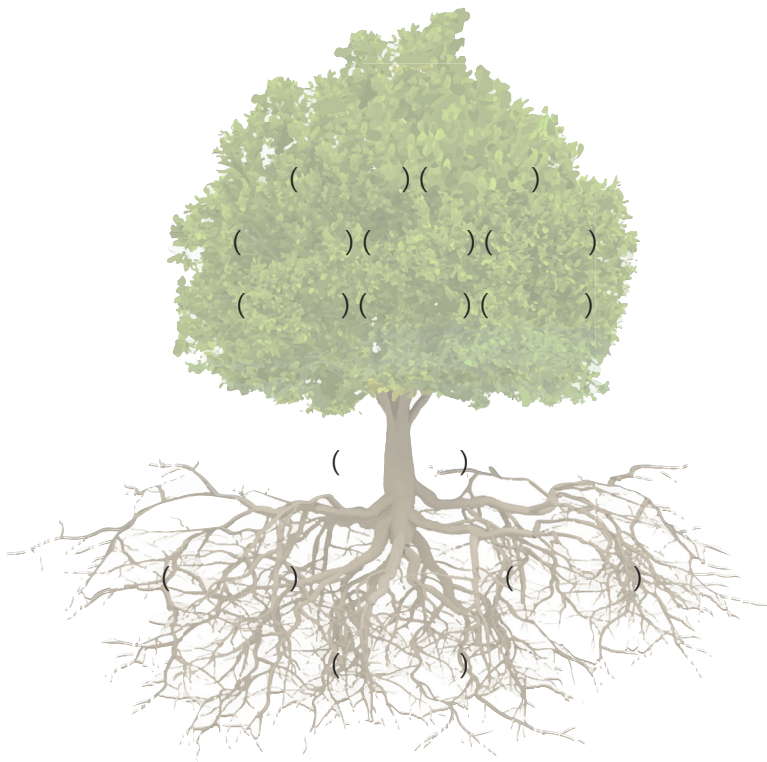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사랑’의 경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풍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

- 현재 나의 나무(The Me Tree)는 어떤 모습인지 한 번 그려보자.
(이것은 돈, 하나님, 나와 관계를 나타내보는 나무임을 염두에 두라)

나의 나무 (The Me Tree)



- 위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롭게 깨달은 점을 나누어 보자.
- 나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계획 속에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인가?

FWIA Voice

요약정리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계획 속에 그리고 직장생활과 일터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 두 원리를 조화시켜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된 재정 사용과 잘못된 투자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제공됩니다.

i TOW Project, "2 Corinthians and Work." <https://www.theologyofwork.org/new-testament/2-corinthians>.

ii 척벤틀리, 「부의 뿌리」 박갑윤 옮김(생명의 말씀사, 2014), 125.

iii 척벤틀리, 「부의 뿌리」 59의 그림을 응용함과 더불어 2장을 참고로 함.